

“남겨진 아이들은...” “이제 서른인데” 유족·조문객 눈물바다

완도에 순직 소방관 빈소·분향소 마련
세 남매 아빠·예비신랑 사연에 ‘애통’
동료들 “허망”...군민 등 추모 발길
영결식 오늘 농어민문화체육센터서



13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

/이연상 기자

“남겨진 세 남매는 어쩌나...”, “이제 겨우 서른인데...”

13일 오전 완도군 완도읍의 한 장례식장에서 이 같은 탄식이 곳곳에서 새 나왔다.

전날 완도 군외면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빈소는 유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조문객들의 깊은 한숨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주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노태영 소방교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떨어져 살다보니 다 같이 모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태영이가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라고 말하다 또다시 터져나온 눈물을 닦았다.

임용 3년 차인 노 소방교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문을 마친 동료 소방관과 지인들은 빈소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고,

일부는 빨갛진 눈으로 서로를 보며 어깨를 두드리는 등 슬픔을 달랬다.

한 소방관은 “옛것까지 같이 운동하던 동료였는데 이렇게 떠나 허망하다”며 “후배들도 잘

파르던 믿음직한 소방관이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세 남매의 아버지였던 박승원 소방경의 빈소에서 울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아내는 고개를 떨근 채 어린 막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박 소방경의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아들이었다”고 얘기하다가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

를 떨쳤다.

같은 날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오전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에는 ‘헌신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추모 현수막이 걸렸고, 그 아래 놓인 두 사람의 영정 주변은 흰 국화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추모객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 국화를 내려놓고 묵념했으며, 일부는 헌화를 마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지역민으로서 비보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나도 수산업에 종사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더 낫지 않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날 정오께부터는 완도고등학교 학생들도 분향소를 찾았다. 박승원 소방경의 자녀가 완도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이다.

완도고등학교 2학년 정모(18)군은 “후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분향소에 왔다”며 “친한 후배는 아니지만 직접 와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두 소방관의 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되며, 합동분향소는 오는 17일까지 운영된다.

/이연상·완도=윤보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옥조근정훈장 추서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 진급
李 대통령은 조전 통해 애도 표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두 소방관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완도군 완도읍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빈소를 찾아 고인들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생전 직급은 소방위와 소방사였는데, 순직으로 1계급씩 특진됐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선으로 뛰어난 두 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 절차와 예우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유가족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두 소방관에게 조전을 보내며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해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고인의 헌신과 사명감이 오늘날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됐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두 소방관을 조문했다. 윤 장관은 별도의 공개 발언 없이 유족을 위로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소방관은 14일 오전 영결식 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다. /이연상 기자

완도 냉동창고 화재 ‘에폭시 작업자’ 입건

경찰, 업무상 실화 혐의 적용
합동감식 마무리...분석 계속

경찰이 소방 대원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로 냉동창고 화재 당시 에폭시 작업을 했던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8시55분께 A씨가 근무했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선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소방 대원 2명이 사망했고 냉동창고 관계자 B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에폭시 작업과 화재 간 인과 관계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 22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끝났지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를 통한 분석 완료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이날까지 A씨와 그에게 에폭시 작업을 지시했다는 B씨, 냉동창고 소유주 C씨, 소방 대원 1명 등 총 4명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완도경찰은 전남경찰청 인력 일부를 지원받아 총 47명 규모의 수사대책본부를 꾸렸다.

이들은 인명 사고를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 물류센터 집회서 노동자·경찰 충돌...7명 부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CU 편의점 배송 노동자들과 경찰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께 나주 한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 출입을 둘러싼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났다.

참가자들은 파업에 맞선 대체 운송 차량의 진-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를 점거해왔으며, 경찰이 이를 통제하고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뒤흔음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회 참가자 4명과 경찰관 3명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 측은 “해가 진 후 어두운 상황에서 무리한 통제가 이뤄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파업은 지난 5일 시작돼 이날로 9일

째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위·수탁 구조 속 이른바 ‘깜깜이 계약’과 낮은 운송료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지입사와 운수회사, 원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계약 조건과 운송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실제 계약 당사자인 노동자조차 내용을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 요구가 수차례 무산된 데다 손해배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며 원청인 BGF리테일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찬용 기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상품등록: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